

월악산 국립공원 이용객의 경험수준이 자연 및  
공원관리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sup>1</sup>  
申元燮<sup>2</sup>

**The Influence of Past Experience Levels on Attitudes  
Toward Environment and Park Management<sup>1</sup>**  
Shin, Won Sop<sup>2</sup>

要 約

산림 휴양의 빈도와 경력 등 과거의 경험과 관련된 이용객의 특성은 전문성에 있어서 중요한 인자로 여겨져 왔다. 전문화란 기본적인 행동에서부터 특수한 행동에 이르는 연속성을 말하며 과거의 연구들은 이용객의 전문화 수준에 따라 그들이 가진 동기, 심리태도, 휴양 만족 수준, 그리고 환경과 관리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전문화 요소인 과거의 경험이 월악산 이용객의 환경에 대한 심리태도와 공원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20명의 이용객을 상대로 1993년 여름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전문화를 규정하는 변수는 ①과거 산림 휴양 경력, ②연간 평균 산림 휴양 빈도, ③연간 산림내에서 지낸 일수, 그리고 ④월악산 방문 횟수가 선택되었고 이중 과거의 경력이 이용객의 환경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즉, 경력이 많은 휴양객은 자연상태의 환경을 선호하고 경력이 적은 휴양객은 사회적 친화가 이루어지는 장소나 개발 지역을 선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선정된 공원관리 속성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반면 이들 속성의 실제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매우 낮은 점수를 주었다.

ABSTRACT

The amount and frequency of past experience in forest recreation have been considered as one component of an overall specialization. Past research has shown that more specialized recreationists have differing motives, attitudes, satisfaction levels, environment preferences, and management preferences. The overall purpose i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pecialization on users' attitudes toward environment and park management. 320 Wolaksan visitors were surveyed in the summer of 1993 to collect the data. Specialization, as measured by past experience, frequencies of visitation to any forest recreation areas per year, visitor days per year, and number of visits to Wolaksan, was tested the relationship to the users' levels of environment attitudes and park management perception. Among the specialization variables, past experience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levels of attitudes toward environment. Experienced recreationists preferred natural environments to settings associated with social activities. Most of respondents perceived the importance of the attributes related to park management. However, they gave low performance scores to the attributes.

*Key words* : forest recreation, specialization, attitudes toward environment, park management

<sup>1</sup> 接受 1994年 3月 8日 Received on March 8, 1994.

<sup>2</sup> 忠北大學校 農科大學 College of Agricul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Korea.

## 서 론

산림 휴양지 이용객의 개인적 특성, 이용행태, 이용경험 그리고 이용동기에 있어 다양성은 많은 연구들(Stankey & Lucas, 1989; Roggenbuck & Weston, 1989; Waston, 1989; Hendee et. al., 1991)에 의하여 밝혀졌다. 따라서 만일 산림 휴양지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이용객에게 양질의 휴양경험을 제공하는데 있다면(Driver & Tocher, 1970),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자원관리에 적용하여 각각의 이용객에게 만족을 줄 것인가?'하는 문제는 관리자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휴양 자원의 관리자는 자원의 보존, 시설의 확충, 이용의 규제 등에 의한 전통적 방법으로 휴양 경험의 질을 높이며 노력했으나 최근에 와서는 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특질을 갖춘 자원을 파악하여 그 욕구와 부합되는 자원으로의 선택을 도와줌으로 이용 만족을 제고하려는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다(Waston et. al., 1991).

휴양객은 일련의 발달과정을 통하여 초보에서 전문가로 발전하며(Bryan, 1977; 1979; Donnelly, Vask & Graefe, 1986), 산림 휴양객의 경험 수준은 전문화란 측면에서 중요한 이용객의 특성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모든 활동들과 마찬가지로 산림휴양에 있어서도 휴양객의 경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전문화되고 이에 따라 이용동기, 행동, 자연 및 자원관리에 대한 선호 등 여러가지 측면에 있어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Bryan(1977)은 전문화의 가장 기본적 지표로서 과거의 경험을 들었고 Williams와 Huffman(1986)은 이러한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등산 및 야영의 경험 수준의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전문화 척도를 개발하였다. Schreyer와 Beaulien(1986)는 휴양객의 경험 수준과 전문화 수준이 휴양자원 속성과 구성 상태에 대한 선호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그들은 휴양객의 경험 수준이 자원의 속성 구성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밖에도 Virden과 Schreyer(1988)은 경험 수준과 원하는 환경 인자의 중요도와 관계를 밝혔고, Lucas(1986)는 경험 수준과 야외휴양 이용경향을, Waston 등(1991)은 과거의 경험

수준이 휴양지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하였으며 Hammitt 등(1986)은 경험 수준에 있어서 성수기와 비성수기 휴양객들 간의 차이를 주장하였다. 산림 휴양에 있어서 경험에 관련된 연구의 공통된 주장은 경험이 전문화의 주요 인자이고 이에 의하여 휴양객의 유형과 선호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휴양객의 경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휴양자원 관리자에게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갖을 수 있는 기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휴양객의 경험 수준이 여러측면에 있어서 그들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경험수준에 따라 그들의 자원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음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밝혀졌다(Stankey, 1973; Young, 1978; Rentz & Schreyer, 1977). Stankey(1973)는 한 개인이 어떠한 물건이나 활동을 더 잘 알면 즉, 전문성이 높으면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림휴양에 있어서도 경험 수준이 전문화를 좌우하고 이에 의하여 그 자연자원에 대한 이해와 심리태도 그리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Rentz와 Schreyer(1977)은 과거의 경험이 자원에 대한 심리자세에 영향을 끼침을 실증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그들은 원생지 이용객의 위험에 대한 심리태도의 조사에서 직접 위험에 직면 했었거나 위험에 대한 정보를 과거에 접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원생지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이 높음을 보여 주었다.

Young(1978)은 원생림 이용객의 경험 수준을 이용 횟수와 경력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이 기준에 의하여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원생지의 생태학 지식 등의 차이를 조사하였는데 이용 경력에 따라서 이 두가지 변수의 점수에는 큰 차이를 보였으나 이용 횟수는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한가지 독특한 발견은 교육 수준과 나이에 따라 자연에 대한 심리자세의 수준이 양(+ )과 부(-)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Young(1978)은 이를 교육 수준은 스스로의 자연에 대한 지식 접근기회를 많이 갖게 하며 이에 의하여 높은 심리자세를 형성케 한다고 주장하였고 나이가 젊은층에서 심리자세가 높은 이유는 최근의 학교 교육에서 자연과 환경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하였다. Young(1978)

은 또 미국의 Boundary Waters Canoe Area 원생림의 이용객과 일리노이주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들의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을 조사한 결과 원생림 이용객의 약 38%가 아주 높은 수준의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 일반시민 집단은 약 7%만이 그 만큼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원생림 휴양객의 심리자세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Stankey(1973)는 이 수준이 각기 다른 이용자 그룹을 형성하고 이는 또한 이용객의 어떤 가치 체제의 밀도를 좌우한다고 하였다. 과거의 연구들(Bultena & Taves, 1961; Hendee et. al., 1968; Lucas, 1970)은 원생지 야영객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그들의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에 따라 그들이 선호하는 원생지의 휴양자원이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즉,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가 낮은 수준의 이용객은 높은 수준의 이용객보다 덜 원시적인 상태의 자연을 선호하고 야영장의 시설에 있어서도 편리함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들(피크닉 식탁, 우물, 화장실, 세면실 등)의 구비를 선호하였다(Young, 1978). 휴양지의 사회적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이용객의 심리자세 수준에 따라 선호도가 다름을 Stankey(1973)는 보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높은 심리태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용객이 적고, 시설과 이용객을 규제하는 법 혹은 규칙이 적게 적용되는 곳을 선호하고 그런 곳에서 높은 휴양 만족을 얻는다고 하였다.

산림 휴양객의 경험 수준에 따라 자연에 대한 심리자세 수준에 영향을 받고(Young, 1978; Stankey, 1973), 또 휴양객의 자연에 대한 심리자세에 따라 산림 휴양자원의 시설수준(Young, 1973)과 휴양지 내의 사회적 요인(즉, 혼잡 및 이용객 상호간의 이용갈등), 법적요인(이용객 규제의 다소 여부), 그리고 관리적 요인에 대한 선호도와 그로부터 오는 만족도가 다르므로(Stankey, 1973), 휴양객의 경험수준에 따라 공원의 시설 및 서비스를 포함한 관리에 대한 인식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Lime과 Stankey(n.d.)도 “전문가/관리자와 일반 방문객 집단간에 커다란 인식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야외휴양의 관리에 있어서 ‘평균적 휴양객’이란 개념은 존재치 않고(Wagar, 1966; Wagar & Shafer, 1969), 따라서 관리자는 그들이 제공할

서비스와 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결정은 많은 범위와 많은 수의 휴양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점을 찾아 그 기준에 따라야 한다.

비록 산림 휴양객에 대한 경험 수준과 전문화에 대한 연구가 외국에서는 다수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선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한 산림 휴양지 안에서 휴양객의 경험수준 또는 전문화 수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등의 기본적 자료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과거의 연구들이 밝힌 바와 같이 전문화 수준에 따라 이용객의 동기, 행태 그리고 선호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는 휴양지 관리대안 수립의 기본적 정보임에 틀림없다. 예를들어 한 산림 휴양지 안에서 과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휴양객은 그렇지 않은 휴양객보다 높은 기준의 휴양 경험을 기대하고 그에 따라 보다 높은 수준의 산림의 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산림 휴양이 제공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양질의 휴양경험을 휴양객에게 제공하는 것(Driver & Tocher, 1970)이라면, 휴양객이 휴양자원을 어떻게 인식하며 그들 자신의 전문화 수준 등의 특성이 이러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주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월악산 이용객의 경험 수준과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그리고 관리 인식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관리자가 이용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 관리 대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수행되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연구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을 제시코자 하였다.

- (1) 월악산 휴양객의 경험수준에 따라 그들이 가진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에도 차이가 있을 것인가?
- (2) 월악산 휴양객의 경험 수준에 따라 월악산 공원관리에 관련된 몇가지 인자의 중요도 및 그의 성취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인가?

##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

### 1. 연구지역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월악산은 국립공원 제17호로써 1984년 12월 27일에 지정되었고 방위상 북위 36°53'03"에 위치하여 있으며 행정 구역상으

로는 충청북도 제원군, 중원군, 단양군과 경상북도 문경군에 위치하고 있다. 월악산 국립공원은 285km<sup>2</sup>의 면적에 월악산(해발 1097m), 용두산(해발 1099m), 하문산(해발 1028m) 등의 험준한 산과 덕주계곡, 만수계곡 등의 계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악산 국립공원의 이용객은 80년대 말부터 연간 약 6.8%의 증가를 보여왔고 1988년에 624천명이던 방문객이 1992년에는 약 870천명으로 130% 이상의 증가를 가져왔다. 월악산이 연구지역으로 선정된 이유는 다양한 환경여건이 구비된 곳이라는 것과 꾸준한 이용객의 증가로 말미암아 공원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2.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지 방문 설문 조사법이 사용되었다. 1993년 늦은 7월부터 8월 10일 사이에 연구자와 사전에 교육된 조사원들에 의하여 5페이지 분량의 설문지가 각 등산로 입구에서 배포되었다. 응답자의 선정기준은 우선 응답자가 휴양객인지를 확인하고 등산을 끝낸 경우에만 배포하였다. 또한 2명 이상의 집단일 경우에는 한 사람만을 상대로 조사하였다. 응답자의 편기(bias)를 줄이기 위하여 주말·주중의 분포와 하루 중에도 시간대 별로 골고른 응답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였다.

**3. 조사내용**

5페이지로 구성된 설문지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묻는 질문 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 연구의 비종속 혹은 종속변수로 사용되기 위하여 조사되었다.

**3.1. 월악산 방문객의 경험수준에 관한 사항**

- ① 과거의 산림 휴양 경험(PEO) :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산림지역을 휴양 목적으로 찾은 년수
- ② 연간 휴양을 위해 산림을 방문하는 횟수(NVY) :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연간 평균적으로 산림을 찾은 횟수
- ③ 연간 산림지역 내에서 휴양을 위해 지낸 날수(NDY) : 어느 지역이나 상관없이 연간 평균적으로 산림지역에서 휴양을 위해 보낸 날수
- ④ 과거 월악산 방문 횟수(PVW) : 총 월악산

**방문 횟수**

이 네가지 변수들은 휴양경험 수준과 전문성에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며 과거 연구들(Hammitt et. al., 1986 ; Watson & Niccolucci, 1991)에서도 경험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이용되었다. Hammitt 등(1986)은 이 네가지 변수에 따라 전문화 수준이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기준에 따라 성수기(여름철)와 겨울철 야영객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Watson 등(1991)도 원생지 휴양객의 경험수준을 여러 변수들로 나누어 조사하고 이들이 휴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위에 사용된 변수들이 중요한 인자임을 보고하였다. Watson과 Niccolucci(1991)도 경험수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휴양 참여의 빈도와 양이라고 주장하였고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은 이를 대표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3.2.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 수준**

사람들이 갖는 자연 환경에 대한 지각과 선호는 각기 다르며 이것들은 쉽게 다른 것들로 대체되지 않는다. 이런 자연에 대한 심리태도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Kaplan(1977)이 개발한 Environmental Preference Questionnaire(E.P.Q)란 시험지를 이용하였다. Kaplan(1977)이 개발한 원래 EPQ는 7개의 영역으로 구성돼 있고 각 영역마다 4개에서 12개까지의 총 60개 예시가 있으며 각 예시마다 1점에서 6점까지에 상응하는 Likert 타입의 답을 할 수 있게 하였다. 60개의 예시중 Kaplan(1977)의 심리 측정학적 검사에 의하여 신뢰도(reliability)가 낮은 예시를 제외하고 연구자에 의하여 구성된 새 EPQ가 이 연구에 이용되었다. 이러한 변형은 Kaplan(1977)의 제안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었는데 EPQ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광범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애매한 항목이나 예시들을 배제시킴으로서 간편한 검사지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 EPQ의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심리 측정학적 특성에 관하여는 Kaplan(1973 ; 1977)의 연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35개 예시의 EPQ는 7개 영역을 분리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들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Table 1. The Environment Preference Questionnaire Items

Items	Sub-scale included
1. Please indicate your preference for each of the following moods or setting	
a totally woodland area	Nature
a front lawn in a suburban area	Rom. Escape
an industrial area	Modern Dev.
a city park	Rom. Escape
a modern housing development	Modern Dev.
a walk through a woodsy area	Nature
the bustle and excitement of a large city	City
2. Thing I like	
beachcombing	Nature
campfire	Nature
wilderness	Nature
caves	Rom. Escape
windy days	Rom. Escape
collecting acorns or pine cones	Nature
lakes, rrvivers	Nature
waterfalls	Nature
3. Please indicate how much satisfaction you get from each of the following	
conversation, all kinds	Social
food	Pass.R. to Str.
ownership of property	Suburb
parties	Social
people	Social
ordors, perfumes, etc.	Pass.R. to Str.
routine activities	Suburb
sports-watching	Suburb
4. How important do you consider each of the following major issues ?	
population	Modern Dev.
law and order	Suburb
environmental decline	Modern Dev.
inflation	Suburb
5. When you have been harried or under pressure, to what degree would each of the following help make you feel better ?	
going to the movies	Pass.R. to Str.
going for a walk in the city, or in a residential neighborhood	City
going for a walk on the beach, in the woods, etc.	Nature
being with friends	Pass.R. to Str.
eating	Pass.R. to Str.
sleeping	Pass.R. to Str.

Note : All items are rated on a six-point scale.

① Nature Scale : 이 영역은 순수상태 혹은 원생상태의 자연(숲, 원생지 등) 파괴되지 않고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자연 선호도를 나타낸다. 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자연을 즐기므로써 만족을 느끼고 바쁘거나 업무의 과중한 압박을 느낄 때를 포함한 가능한 시간에 자연을 찾으려 노력한다.

② Romantic Escape : 이 영역도 자연에 대한 선호를 나타내지만 이 영역에 속한 문항들은 도시나 근교의 환경으로 부터의 이상적인 도피를 나타낸다.

③ Modern Development : 이 영역은 현대 주거 환경지역 및 상가지역의 선호를 나타낸다. 여기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들은 인구문제 및 환경의 질저하 문제를 비교적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④ Suburb : 이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법과 질서, 그리고 운동경기를 관람함으로써 생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 ⑤ Social : 이 영역은 얼마만큼 대화나 파티, 그리고 남과 더불어 있으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 ⑥ Passive Reaction to Stress : 이 영역의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은 과중한 업무나 문제에 봉착하였을 때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먹는 것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풀려는 수동적 방법을 취한다. 통상 이런 사람들은 평시에 먹는 것을 통하여 만족을 느끼고 향수나 방향제 등을 선호한다.
- ⑦ City : 이 영역은 도시환경의 선호를 측정한다.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은 대도시의 혼잡거림을 선호하고 도심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

3.3. 공원관리(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속성의 중요도와 성취에 대한 평가

공원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속성으로 김(1991)이 이미 선정한 "야영장 편의시설", "화장실 편의" 등의 10가지 항목이 이 연구에서 이용되었다. 선정된 각 속성들에 대하여 방문자에게 우선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9단계의 Likert타입의(즉, '매우 중요치 않다'에서 '매우 중요하다'까지) 질문을 하였고 다시 이들 각 속성이 월악산 국립공원에서는 얼마나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하였다. 김(1991)이 이용하였던 방법대로 응답오류를 적게 하기 위하여 중요도와 성취도를 묻는 질문은 다른 페이지에 위치시켰고 항목간의 질문 순서도 무작위로 배치하였다.

결과 및 고찰

320매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17매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303명의 설문지가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이용되었다. 303명의 응답자중 남·여의 구성비는 약 60% : 40%이었다. 응답자의 평균나이는 27세를 약간 웃돌았고 가계수입은 한달에 1백만원에서 1백50만원이 가장 많았다. 그들의 평균 학력은 '약간의 대학교육'을 받은 수준이었고 직업별 구성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학생(약 50.8%)이었고 그 다음이 회사원 혹은 공무원(16.3%)순이었다.

방법 부분에서 언급한 대로 월악산 국립공원 이용객의 경험 수준이 4가지 변수에 의하여 측정되었다. 이들은 과거 산림휴양의 경력(PEO), 연간 산림휴양의 참여횟수(NVY), 연간 산림휴양일수(NDY), 그리고 총 월악산 방문 횟수(PVW)이었다. 이 각각의 변수는 통계분석상 편의를 위하여 상위집단(High), 중위집단(Moderate), 그리고 하위집단(Low)으로 분류되었다(표 2의 주 2 참조).

Table 2. Level of Experience by Categories of Experience for visitors in Wolaksan National Park(N=303)

Experience Level <sup>2</sup>	Experience Categories <sup>1</sup>			
	PEO	NVY	NDY	PVW
..... percent .....				
Low	199 (65.7)	153 (50.5)	151 (49.8)	171 (56.4)
Moderate	34 (11.2)	107 (35.3)	84 (27.7)	59 (19.5)
High	70 (23.1)	43 (14.2)	68 (22.4)	73 (24.1)

<sup>1</sup> PEO=Past Experience Overall(Year of experiences to visit any forest recreation areas regularly)

NVY=Numbers of Visitations to any forest recreation areas per Year

NDY=Numbers of days in any forest recreation areas per Year

PVW=Past number of visitations to Wolaksan

<sup>2</sup> Low : POE=1-2 yrs ; NVY=1-2 visits/yr ; NDY= 2-3 days/yr ; PVW=1st visit

Moderate : POE=3-4 yrs ; NVY=3-4 visits/yr ; NDY=4-7 days/yr ; PVW=2nd visit

High : POE=more than 5 yrs ; NVY=more than 5 visits/yr ; NDY=more than a week/yr ; PVW=3rd or more visit

**Table 3.** Relationship of experience level to EPQ for Wolaksan visitors by categories of experience.

EPQ factors and experience categories	Average exp. level			r	Sig. (2 tailed)
	Low	Moderate	High		
<b>NATURE SCALE<sup>a</sup></b>					
PEO	39.60	38.82	35.80	.145	.010
NVY	37.97	39.14	39.72	.064	.263
NDY	37.74	39.05	40.10	.091	.113
PVW	39.57	35.85	38.70	-.058	.315
<b>ROMANTIC ESCAPE<sup>b</sup></b>					
PEO	14.87	14.68	13.21	.158	.006
NVY	14.61	14.28	12.42	.026	.649
NDY	14.43	14.37	14.66	.018	.751
PVW	14.83	13.80	14.14	.081	.161
<b>MODERN DEV<sup>c</sup></b>					
PEO	9.79	8.82	8.29	-.173	.002
NVY	10.04	8.79	8.16	-.096	.011
NDY	9.79	9.17	8.51	-.138	.016
PVW	9.70	9.08	8.68	-.116	.043
<b>SUBURBS<sup>d</sup></b>					
PEO	21.80	20.85	20.07	-.123	.033
NVY	21.21	21.74	20.77	-.004	.945
NDY	20.95	21.63	21.81	.059	.302
PVW	21.50	20.66	21.48	-.012	.839
<b>SOCIALS<sup>e</sup></b>					
PEO	17.85	16.91	15.90	-.164	.004
NVY	17.14	17.55	17.21	.018	.745
NDY	16.88	17.61	17.82	.081	.159
PVW	17.63	16.58	17.08	-.058	.314
<b>PASSIVE REACTION<sup>f</sup> TO STRESS</b>					
PEO	18.88	17.24	15.87	-.209	.000
NVY	18.44	17.79	17.00	-.083	.151
NDY	18.56	17.33	17.60	-.074	.196
PVW	18.57	16.92	17.55	-.085	.142
<b>CITY<sup>g</sup></b>					
PEO	5.94	5.53	5.23	-.124	.031
NVY	5.80	5.65	5.67	-.025	.663
NDY	5.73	5.79	5.68	-.005	.926
PVW	5.92	5.31	5.96	-.061	.287

<sup>a</sup> Possible range of scores : 9-54

<sup>b</sup> Possible range of scores : 4-24

<sup>c</sup> Possible range of scores : 4-24

<sup>d</sup> Possible range of scores : 4-24

<sup>e</sup> Possible range of scores : 4-24

<sup>f</sup> Possible range of scores : 5-30

<sup>g</sup> Possible range of scores : 2-14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월악산 이용객의 반수 이상은 모든 경험 변수에 있어서 하위집단에 속하였다. 특히 66% 정도의 이용객은 최근에야 (1-2년 이내) 정기적으로 산림휴양 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험자

집단이(약 23%) 3-4년의 경력을 가진 중간의 집단(약 11%) 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평균적으로 산림 휴양을 갖는 기회는 년 1-2회가 응답자의 반수를 차지하였고(50.5%), 년 3-4회가 35%, 그리고 년 5회 이상 휴양을 위하여 산림을

찾는다고 한 응답자는 약 14%이었다. 연간 산림 내에서 보낸 일수는 약 50%가 2-3일이었고, 4-7일을 보낸 응답자가 28% 그리고 1주일 이상을 보낸 응답자는 22%로 구성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 월악산 방문의 경험에 관하여는 처음 방문한다고 응답한 수는 약 56%이었고 두번째와 세번 이상이라고 응답자는 각각 20%와 24%이었다.

표 3는 7개의 EPQ영역이 각각의 경험수준과 어떠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이다. 모든 영역에서 과거 산림 휴양의 경력 수준과 환경에 대한 심리자세와는 통계적으로  $P < 0.01$ 수준에서 연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경력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Modern Development' 영역과 'Passive Reaction to Stress' 영역에서 보다 더 큰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P < 0.001$ ). 그러나 다른 과거의 경험수준 변수들 즉, 연평균 산림 휴양지 방문 횟수 및 일수 그리고 과거 월악산 방문횟수 등은 각 EPQ영역과 연관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는 아마도 과거의 전체적 산림 휴양 경력(PEO)변수가 다른 변수에 비하여 휴양객의 자원 환경에 대한 심리태도에 대하여 민감히 대응하는 변수로 여겨진다.

경력 수준과 각 영역의 상관관계는 그 영역의 특징에 따라 'Nature'와 'Romantic Escape'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그리고 'Modern Development'와 'Suburbs', 'Socials', 'Passive Reaction to Stress', 'City' 영역에서는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관계는 Kaplan(1973; 1977)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나 이 EPQ의 타당도(validity)가 문화적·지역적 차이에서도 범용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내었다. 각 영역간의 상관관계는 표 4에서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데 7개의 영역이 모두 서로 뚜렷한 상관관계를 나타

냄으로써 각 영역이 서로 의존적이며 내적 일치성(internal consistency)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산림휴양의 경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순수 상태의 자연을 좋아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평화롭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며 동굴이나 해변가의 산책 등 낭만적인 활동도 선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거대한 상가 등의 현대적 개발 지역과 시끄러운 도시 환경을 싫어하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영화, TV 등을 봄으로써 스트레스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선호하지 않고 파티와 각종의 대화에서 생의 만족을 얻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5와 6는 월악산 이용객의 경험 수준에 따라 그들의 공원관리 속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낸 표이다. 방법 부분에서 논의된 대로 공원관리에 관련된 10개의 속성들에 대한 이용객의 중요도와 실제 제공된 각 속성에 대한 수행의 평가는 1점(매우 중요치 않다; 아주 나쁘다)에서 9점(매우 중요하다; 아주 좋다)의 Likert타입의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이용객들이 응답한 속성들의 중요도와 성취도에 대한 전체 점수의 차이는 상당한 유의수준이 발견되었다(전체 중요도 평균=69.29; 전체 수행 평가 평균=40.11;  $t=25.04$ ;  $d.f=288$ ;  $p=.000$ ). 따라서 월악산 이용객들은 여기에 제시된 공원관리 속성의 중요성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실제수행에 있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고든 경험 수준에 있어서 대부분은 경험 수준에 관계없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숙박시설과 야영장 시설에 관한 속성은 산림휴양의 경력 연수에 따라 그 중요하다고 인식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었다(숙박시설:  $F=5.837$ ;  $P=0.003$ ; 야영장시설:  $F=4.950$ ;  $P=0.008$ ). 같은 속성에 대하여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서비스가 제공되었는

Table 4. Correlation Matrix Among the EPQ Factors

Factor	1	2	3	4	5	6	7
Nature	.						
Rom	.703	.					
Modern	-.230	-.272	.				
Suburbs	-.638	-.499	.267	.			
Socials	-.650	-.508	.339	.790	.		
Pass	-.467	-.378	.432	.617	.677	.	
City	-.311	-.322	.512	.372	.450	.475	.

Note: all factor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at  $P < .001$  level



**Table 5.** Relationship of experience level to attributes related to perceived importance and in Wolaksan

Attributes and experience categories	Ave	Exp	Level	ANOVA F	Sig.
	Low	Moderate	High		
<b>1 Entrance Guide</b>					
PEO	6.43	7.15	5.79	2.952	0.054
NVY	6.31	6.44	6.33	0.068	0.935
NDY	6.14	5.97	5.96	0.951	0.387
PVW	6.67	5.97	5.96	2.415	0.091
<b>2 Display/Education</b>					
PEO	5.66	5.26	5.30	0.676	0.509
NVY	5.69	5.27	5.65	0.811	0.445
NDY	5.55	5.26	5.84	0.883	0.415
PVW	5.67	5.10	5.58	0.997	0.370
<b>3 Toilet/Trash Can</b>					
PEO	7.67	7.97	6.76	4.151	0.017
NVY	7.59	7.41	7.35	0.248	0.781
NDY	7.46	7.57	7.47	0.053	0.949
PVW	7.51	7.25	7.64	0.396	0.673
<b>4 Accomodation</b>					
PEO	6.09	6.29	4.89	5.837	0.003
NVY	5.90	5.69	5.95	0.229	0.796
NDY	5.73	5.68	6.25	1.059	0.348
PVW	6.01	5.31	5.85	1.480	0.224
<b>5 Map/Guide Booklet</b>					
PEO	6.60	7.12	6.07	2.143	0.119
NVY	6.67	6.58	6.65	0.110	0.890
NDY	6.47	6.45	6.78	0.408	0.665
PVW	6.81	5.98	6.34	2.618	0.075
<b>6 Direction Sign</b>					
PEO	7.13	7.53	6.59	2.042	0.132
NVY	7.24	6.74	7.14	1.352	0.260
NDY	7.01	7.26	6.87	0.531	0.589
PVW	7.32	6.49	6.86	2.821	0.061
<b>7 Shelter/Rest Area</b>					
PEO	6.94	7.26	6.09	3.624	0.028
NVY	7.01	6.38	6.95	1.991	0.138
NDY	6.56	7.06	6.91	1.132	0.324
PVW	6.91	6.29	6.86	1.355	0.259
<b>8 Trail Safety</b>					
PEO	7.51	7.47	6.63	3.124	0.045
NVY	7.59	6.91	7.26	2.239	0.108
NDY	7.28	7.15	7.54	0.435	0.647
PVW	7.57	6.97	6.95	2.131	0.121
<b>9 Park Ranger</b>					
PEO	6.90	6.68	6.47	0.709	0.493
NVY	7.02	6.26	7.19	3.261	0.040
NDY	6.55	6.95	7.06	1.138	0.322
PVW	6.89	6.39	6.81	0.812	0.445
<b>10 Compground Facilities</b>					
PEO	7.43	7.53	6.36	4.950	0.008
NVY	7.48	6.83	7.07	2.057	0.130
NDY	7.13	7.26	7.24	0.081	0.922
PVW	7.38	7.00	6.90	1.082	0.340

**Table 6.** Relationship experience to attributes related to perceived and performance Wolaksan

Attributes and experience categories	Ave	Exp	Level	ANOVA F	Sig.
	Low	Moderate	High		
<b>1 Entrance Guide</b>					
PEO	3.63	3.38	3.43	0.377	0.680
NVY	3.50	3.66	3.49	0.209	0.811
NDY	3.51	3.70	3.49	0.277	0.758
PVW	3.80	2.97	3.47	3.614	0.028
<b>2 Display/Education</b>					
PEO	3.12	2.79	2.79	1.037	0.350
NVY	3.00	2.96	3.14	0.133	0.875
NDY	3.12	2.69	3.15	1.609	0.202
PVW	3.20	2.56	2.92	2.599	0.076
<b>3 Toilet/Trash Can</b>					
PEO	4.35	4.65	4.01	0.821	0.441
NVY	4.23	4.21	4.79	0.954	0.386
NDY	4.48	3.63	4.75	4.607	0.011
PVW	4.67	3.59	4.03	4.760	0.009
<b>4 Accomodation</b>					
PEO	4.23	4.82	3.87	2.165	0.116
NVY	4.19	4.25	4.21	0.025	0.975
NDY	4.21	4.11	4.37	0.263	0.769
PVW	4.59	3.66	3.78	5.944	0.003
<b>5 Map/Guide Booklet</b>					
PEO	3.89	4.24	3.33	2.619	0.075
NVY	3.90	3.58	4.00	0.913	0.402
NDY	3.83	3.60	3.97	0.622	0.537
PVW	4.03	3.41	3.58	2.416	0.091
<b>6 Direction Sign</b>					
PEO	4.25	4.21	3.70	1.681	0.188
NVY	4.16	3.92	4.49	1.097	0.335
NDY	4.09	4.02	4.29	0.307	0.736
PVW	4.41	3.59	3.86	3.777	0.024
<b>7 Shelter/Rest Area</b>					
PEO	3.73	3.85	3.60	0.185	0.831
NVY	3.71	3.74	3.67	0.016	0.984
NDY	3.62	3.88	3.72	0.437	0.647
PVW	4.03	3.29	3.32	4.648	0.007
<b>8 Trail Safety</b>					
PEO	3.92	4.35	3.56	1.495	0.226
NVY	3.88	3.91	3.86	0.009	0.991
NDY	3.75	3.88	4.18	0.815	0.443
PVW	4.24	3.41	3.44	4.986	0.007
<b>9 Park Ranger</b>					
PEO	3.16	3.47	2.81	1.142	0.321
NVY	3.12	3.09	3.12	0.006	0.994
NDY	3.02	3.18	3.24	0.279	0.757
PVW	4.42	2.53	2.88	4.262	0.015
<b>10 Compground Facilities</b>					
PEO	4.90	4.29	4.43	1.534	0.217
NVY	4.65	4.77	4.88	0.165	0.848
NDY	4.77	4.38	5.04	1.400	0.248
PVW	5.16	4.34	4.01	6.606	0.002

가를 물었을 때 대부분 응답자는 그들의 경험 수준에 관계없이 낮게 평가를 하였다. 단지 숙박시설, 등산로, 화장실, 휴지통 그리고 야영장시설 등 4개의 속성에 관하여는 월악산의 방문횟수 수준 즉, 처음 방문인가 혹은 두번 또는 세번 이상의 방문인가에 따라서 평가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화장실, 휴지통:  $F=4.760$ ;  $P=0.009$ ; 숙박시설:  $F=5.944$ ;  $P=0.003$ ; 등산로 안전:  $F=4.986$ ;  $P=0.007$ ; 야영장시설:  $F=6.606$ ;  $P=0.002$ ). 비록 몇개의 속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인정되지만 대부분의 속성들은 어떠한 경험 수준에도 그 중요도 및 수행도 평가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두가지 추측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공원관리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에 있어서 그들의 경험 수준보다는 다른 어떤 알려지지 않은 변수에 의하여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다른 하나의 설명은 자료의 'Ceiling effect' 즉, 응답한 중요도와 성취도에 대한 점수가 한쪽으로 몰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55%)의 응답자가 각각의 공원관리 속성에 대한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 7점 이상(9점 만점)으로 응답하였고 5점 이하로 답한 응답은 불과 12% 뿐이었다. 이와 반대로 이들 속성에 대한 수행평가 점수는 대부분(79%)의 응답자가 4점 이하(9점 만점)의 평가를 하였고 오직 2%의 응답자만이 7점 이상의 평가를 하였다. 이러한 낮은 평가는 월악산 이용객의 전체적 휴양 만족도와도 연관되어 대부분의 월악산 이용객들은(63.5%) 그들의 월악산 휴양 경험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였고 오직 5.4%의 이용

객만이 만족한다고 답하여 만족도의 제고를 위한 관리대안이 심각하게 요구됨을 알려주었다.

김(1991)과 신(1993)이 지적하였듯이 공원관리에 대한 속성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사전에 중요한 속성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이용자의 의견 뿐 아니라 경영자와 전문가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 속성의 특징에 따라 응답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가를 조사하고 가능하면 범용적 사용을 위한 공원평가 척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월악산 이용객의 경험수준 특히 그들의 산림 휴양 경력의 연수와 환경에 대한 심리자세의 수준과는 연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즉 휴양경력이 많을수록 자연상태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경영자는 이를 염두에 두고 경영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경영자가 부딪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관리대안을 어느 계층을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가려하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약 66%의 응답자가 경험수준(즉, 산림 휴양의 경력 연수)이 낮은 집단이고 나머지가 중간과 상위 집단이므로 이용객의 반이상은 환경에 대한 심리자세 또한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도시적 편리함을 선호하고 고적한 환경보다는 사교적 장소를 좋아하는 사람들(표 3)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시설의 확충이 휴양 만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중점적 관리시행은 나머지 집단의 회생을 요구하므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제안은 월악산 이용객의 경험수준에 따라

**Table 7.** Frequencies of the Most important Activities in Wolaksan by visitors Experience Level

Activity Categories Rank	Low Exp Level		Moderate Exp Level		High Exp Level	
	Freg (%)	Rank	Freg (%)	Rank	Freg (%)	Rank
Swimming	41(33.6%)	1	2(3.8%)	6	1(3.3%)	6
Camping	28(23.0%)	2	5(9.4%)	3	4(13.3%)	3
Sightseeing	12(9.8%)	3	3(5.7%)	5	-	-
Climbing	11(9.0%)	4	26(49.1%)	1	11(36.7%)	1
Entertainment	9(7.4%)	5	1(1.9%)	8	1(3.3%)	6
Friendship · Kinship	8(6.6%)	6	2(3.8%)	6	2(6.7%)	5
Stress Reduction	6(4.9%)	7	6(11.3%)	2	6(20.0%)	2
Eating	3(2.3%)	8	1(1.9%)	8	1(3.3%)	6
Sleeping	2(1.6%)	9	-	-	1(3.3%)	6
Taking Picture	2(1.6%)	10	-	-	-	-
Learn Nature	-	-	4(7.5%)	4	3(10.0%)	4

그들이 중요시하는 휴양활동이 달라지므로(표 7) 이에 따른 등급별 관리체제의 마련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시 표현하면 휴양경력이 적은 이용객은 월악산 국립공원의 야영장 및 그 주변의 집단시설 지구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야영, 수영, 관광 등)을 중요시하는 반면 경력 수준이 높은 이용객은 주로 산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등반, 스트레스 해소) 등에 더 중요성을 둔다고 보여지므로 각 이용객 집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휴양 활동의 만족 제고를 위한 관리 대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집단시설 지구내의 활동을 중요시 여기는 낮은 경력의 이용객은 주로 활동의 편리를 위한 시설의 관리에 중점을 두고 경력수준이 높은 이용객들을 위하여는 산속에서 그들의 휴양 경험의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안 즉, 등산로 및 등반시 스트레스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예를 들어 혼잡을 피하게 하거나 원시적 자연상태를 보존하는 것 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객의 경력, 다시 말하면 전문화될수록 고집감이 그들의 휴양경험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므로(Hammit et. al., 1986), 이용분산을 위한 안내지도는 그들의 휴양계획에 있어 매우 유익할 것이다. 반면 이용객의 약 65%를 차지하는 초보 경력자는 공원 관리자에게 몇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은 사회적 수용력에 있어 많은 사람들의 조우에도 휴양경험이 손상되지 않고 동반객의 수에 있어 경험 수준이 높은 사람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경향을 보이며 지역적으로 편중된 이용 성향을 보이므로(Lucas, 1986), 이들의 이용에 의한 휴양 자원의 부정적 영향은 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의 이용에서 오는 것보다 심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떻게 효율적인 방법으로 휴양 자원을 이용하여 경험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하는 교육과 정보의 전달이 경영의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한 긍정적 자원 이용은 그들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이용객 집단과 관리자 그리고 휴양 자원 자체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휴양객의 경험 수준이 이용패턴, 행태 그리고 심리 태도 등에 어떠한 영향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등의 과거 연구들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실제 관리에 응용

하기 위하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한 다른 지역 등에서의 반복 연구와 확대 연구는 이 연구 결과의 비교와 응용함에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된 경험 수준의 단순분류(즉, 과거경력, 방문횟수 등)와 함께 일반적인 변수와 지역적 변수들의 경험이 종합된 새로운 분류는 과거의 경험 수준을 나타내는데 보다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 사 사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 조사와 자료의 컴퓨터 입력에 협조를 하여준 충북대학교 임학과 김원식, 김태운, 연평식, 이상희군 등에게 감사를 포함합니다.

### 인 용 문 헌

1. 김성일. 1991. 중요도-성취도 분석에 의한 공원관리평가. 한림지 80(1) : 20-39.
2. 신원섭. 1993. 중요도-성취도 분석에 의한 임간학교 교사의 지도평가. 농업과학연구 11(1) : 20-39.
3. Bryan, H. 1977. Leisure value systems and recreational specialization. J. of Leisure Research 9 : 174-187.
4. \_\_\_\_\_. 1979. Conflict in the great outdoor. University, AL : Bureau of Public Administration, Univ. of Alabama.
5. Bultenal, G.L. and Taves, M.J. 1961. Changing wilderness image and forest policy. J. of Forestry 59 : 167-171.
6. Donnelly, M.P., Vaske, J.J. and Graefe, A.R. 1986. Degree and range of recreation specialization. J. of Leisure Research 18 : 81-95.
7. Driver, B.L. and Tocher, S. 1970. Toward a behavioral interpretation of recreational engagements with replications for planning. In : Driver(ed.), Elements of outdoor recreation planning. Ann Arbor, MI : Univ. of Michigan Press.
8. Hammitt, W.E., McDonald, G.D. and

- Hughes, J.L. 1986. Experience level and participation motives of winter wilderness use. In : Lucas(ed.), Proceedings-National Wilderness Research Conference, Current Issues. USDA Forest Service Gen. Tech. Rep. INT-212.
9. Hendee, J.C., Catton, W.R., Marlow, L. D. and Brockman, C.F. 1968. Wilderness users in the Pacific Northwest. USDA Forest Service Res. Rep. PNW-61.
10. Kaplan, R. 1973. Some psychological benefits of gardening. *Environment and Behavior* 5(2) : 145-162.
11. \_\_\_\_\_ 1977. Patterns of environmental preferences. *Environment and Behavior* 9(2) : 195-216.
12. Lucas, R.C. 1970. User concepts of wilderness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source management. In : Proshansky et. al. (eds.), *Environmental psychology*. New York : Holt, Rinehard & Winston.
13. Rentz, L.H. and Schreyer, R. 1977. Park visitor perception to low risk natural hazards. Logan, UT : Utah State Univ.
14. Roggenbuck, J.W. and Watson, A.E. 1989. Wilderness recreation use. In : Watson(ed.), *Outdoor Recreation Benchmark 1988*. USDA Forest Service Gen. Tech. Rep. SE-52.
15. Schreyer, R.M. and Beaulieu, J.T. 1986. Attribute preference for wildland recreation settings. *J. of Leisure Research* 18 : 231-247.
16. Stankey, G.H. 1973. visitor perception of wilderness recreation carrying capacity. USDA Forest Service Res. Pap. INT-142.
17. \_\_\_\_\_ and Lucas, R.C. 1987. Shifting trends in backcountry and wilderness use. In : Brown et. al.(eds.), *Recreation and Park Management* : College of Forestry, Oregon State Univ., Corvallis, OR.
18. Virden, R.J. and Schreyer, A.M. 1988. Recreation specialization as an indicator of environmental preference. *Environment and Behavior* 20 : 721-739.
19. Wagar, J.A. 1966. Quality in outdoor recreation. *Trends in Park and Recreation* 3(3) : 9-12.
20. Watson, A.E. 1989. Wilderness visitor management practice. USDA Forest Service Gen. Tech. Rep. SE-52.
21. \_\_\_\_\_, Roggenbuck, J.W. and Williams, D.R. 1991. The influence of past experience on wilderness choice. *J. of Leisure Research* 23(1) : 21-36.
22. Williams, D.R. and Huffman, M.G. 1986. Recreation specialization as a factor in backcountry trail choice. In : Lucas(ed.), *Proceedings-National Wilderness Research Conference : Current Issues*. USDA Forest Service Gen. Tech. Rep. INT-212.
23. Young, R.A. 1978. An analysis of wilderness concepts and values.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Urbana, IL.